

# Grace

은혜

2019.11

vol. 202 / NOVEMBER  
강남중앙교회

## Contents

- 2p. 칼럼(최병락 담임목사) 3p. 목회자 컨퍼런스 'RE-IGNITE'
- 4-5p. 백일장 대회 '쓰임' 당선자 발표 / 당선작(시 부문 : 김선율)
- 6p. 새가족 간증(박수현), 새가족 정착(한은미)
- 7p. 국내선교편지(더숲교회) / 해외선교편지(김해 우즈베키스탄 사역)
- 8p. 초등처 파자마파티 & 프렌즈데이 9p. 중등처 ACE Festival
- 10p. 구약개론 / 신앙의 베이직 11p. 감사콘서트 / 일러스트(진짜 감사)
- 12p. 광고 : 차세대교육국 성경암송대회/100만 시간 기도표

# 감사 표지



thanks giving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6:26)

칼럼  
COLUMN

# 부족함이 우리를 살린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가르친다. 공평과 정의가 가르쳐져야 할 학교에서조차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여전히 통하고 있다. 특별반, 진학반 등의 이름으로 똑똑한 아이들을 구별하고 치밀한 진학상담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시킨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 집중력 있는 공부를 시키고 특별상담이 필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이런 선순환과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에 오히려 힘이 없어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 - 우주에서 살아남는 법

만약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하다 돌아오는 길에 우주선이 고장 난다면 어떻게 될까? 무무라는 작가가 쓴 <오로, 별생>이라는 책에 이런 실화사 소개되어 있다. 미 항공 우주국에서 1970년 4월 11일에 세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그런데, 32만 1860킬로미터까지 날아오른 아폴로 13호에 두 개의 산소통 중 하나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놀라운 것은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고 산소의 부족을 겪게 된 이 우주선이 옛세 뒤에 극적으로 무사생환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미 항공우주국의 규정과 지시를 어기고 우주선의 모든 불을 꺼버렸다. 그런데 불이 꺼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불을 끄는 순간 희미하게 보이던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만약 이들이 자기들을 비추는 빛을 끄지 않았다면 정작 자신들이 보아야 할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 앞의 빛을 끄자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빛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모세는 마흔 살에 사람을 죽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다. 모세가 40년 사막과 광야를 헤매는 동안 건조한 사막의 기후 특성상 덤불에서 타고 있는 불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단 한 번도 그런 불이 제대로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자기가 켜놓은 이런 저런 가능성의 불들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워놓으신 불이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80세 노인으로 접어들자 그의 주변에 켜져 있던 불빛들이 소리 없이 하나, 하나 꺼져 갔을 것이다. 그러자 드디어 덤불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 타고 있는 덤불처럼 저마다의 인생 앞에 타는 불꽃을 밝혀놓았다. 그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너무 밝아진 불들을 하나, 하나 의도적으로 끄실 지도 모른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 불은 꺼져야한다. 그 불이 꺼져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불이 보이기 때문이다.

## -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로 사막을 횡단하다가 모래 눈에 자동차가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은 도나휴는 그의 책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차가 사막 모래 눈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하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이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바퀴와의 마찰력이 생기고 자동차는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막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 타이어 공기가 조금만 더 있어준다면 문제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기 한 움큼이 없어서 인생이 모래사막에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타이어 속에 남아있는 소량의 공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작은 희망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방해할 때가 많다. 남아있는 공기마저 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워야한다.

유학을 와서 공부할 때 학교 수업료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을 때가 있었다. 수업료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에 남은 잔고에 비해 더 큰 금액의 새로운 수업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아내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다. 아내는 불박이장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다. 아이가 어려울 때 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박이장 안에 들어가 기도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 생긴 아내만의 기도 방법이다. 나는 책상 앞에서 기도했다. 아내는 기도하며 가정의 재정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왔다. 우리의 모든 재정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었다.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시켜주지 않고 있던 공기마저 빼라고 하시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전액을 찾아와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현금으로 바쳤다. 사막에 갇힌 우리 가정이 남아있는 타이어의 바람을 모두 뺐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기적 같은 간증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학비 문제 뿐 아니라 부채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주셨다.



최병락 담임목사

창세기 32장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두 다리의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인 두 다리를 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환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야곱은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무사히 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남아있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기를 바란다.

## - 교통사고에서 살아남는 법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책 <인생수업>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운전중을 하고 가던 여인이 교통사고현 앞에 멈추어 섰다. 그런데 백미러를 통해서 보니 뒤에 오는 차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갔다. 차의 충돌을 직감한 그 여인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순간 몸에 힘을 빼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잠자듯이 눈을 감은 채 죽음을 기다렸다. 예상대로 달려오던 차는 충돌했고 그녀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한참 후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앞에 있던 차는 자기 차에 부딪혀 충상을 입었지만 직접적으로 부딪힌 이 여인은 무사했다. 힘을 뺐 것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어 상황이 순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인생은 힘이 있어야 살기도 하지만, 힘을 빼야 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힘이 넘치는 것도 큰 복이지만, 힘이 모자라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서 만족한 상태에서도 살 수 있지만, 때로는 부족한 상황이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 솔로몬은 만족이 그의 인생을 망쳐놓았지만 오히려 오히려 만족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러 번 수영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다리에 쥐가 나기 때문이었다. 쥐가 나는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물속에서 너무 힘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물에서는 힘을 빼야 살 수 있다. 힘을 주면 쥐가 나서 강의 한가운데서 죽고 만다. 힘을 빼고 강물을 자신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사람만이 강을 건널 수 있다.

현대인들의 삶에는 너무 많은 긴장과 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멈추어 서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더 큰 문제는, 멈추어 섰다면 그때라도 힘을 빼야하는데 그 와중에 더 세계 힘을 주고 위기를 모면하려 애쓴다. 그러니 도무지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힘들을 모두 빼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힘이 없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 - 가벼워야 산다.

최초로 남극탐험에 성공한 두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 아문센과 영국 군인 스콧 경이다. 노르웨이 탐험대를 이끌던 아문센은 무사히 남극탐험에 성공한 반면 스콧이 이끄는 영국탐험대는 전원 사망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준비물의 차이였다. 아문센 원정대는 남극탐험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여행을 떠난 반면, 스콧 탐험대는 지나치게 불필요한 준비물을 많이 가지고 떠난 것에서 그 승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문센의 가벼운 짐이 그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많은 짐들을 챙겨서 떠나려고 한다. 백년도 못 다니는 여행에 천 년짜리 짐을 싸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예수님은 가볍게 여행하신 분이시다. 가볍게 여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히 아셨다는 뜻이며,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가벼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가볍다면 충분히 가진 것이다. 더 가지지 않아도 된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다가 반드시 채워질 것이다. 나중에 필요한 것을 오늘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 오늘부터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짐이 아니라 다음 성경구절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 길을 나서는 사람의 짐은 가벼울 수 밖에 없다. 결코 부족함 것이 아니다.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모자란 것이 아니다.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별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여행을 떠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분명하다.

최병락, '부족함', 두란노, 2015 |

RE-IGNITE

# 2019 목회자 컨퍼런스 'RE-IGNITE'



김 심발라 목사(오른쪽)와 최병락 목사(왼쪽)



'2020서울페스티벌'이 주최한 2019 목회자 컨퍼런스 'RE-IGNITE'(다시 타오르게 하소서)가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미국 브루클린 태버나클교회 김 심발라(Jim Simbala)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들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심발라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

다. 주님의 부르심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릎 꿇어보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더 유명해지거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은 1초 안에 사라진다. 내가 여러분들에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속삭이시는 소리까지 다 듣고 실행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고,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과 의 관계성에 집중할 때, 주일 설교에 큰 축복이 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모이고, 더 큰 물질 축복을 받는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10년 후 그분들의 소식을 다시 들었을 때, 겸손과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단지 회사의 CEO가 되어 있었다. 사단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잡음을 내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집중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나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통역과 컨퍼런스 구성을 담당했던 최병락 목사는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점화되고 예전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없었던 더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돌아올 2020년 서울페스티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280여 명의 찬양대가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을 울려드렸다. 이 찬양대는 통역을 맡은 최병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연합 찬양대였다. 이 연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연합 찬양대

합 찬양대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는 가사처럼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이날 참석한 강남중앙침례교회 박경숙 권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열릴 서울페스티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며 김중신 장로는 "특별히 우리 교회 자랑스런 최병락 담임목사님! 오늘 통역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실력이 좋아서 흐뭇했습니다!" 라고 최병락 목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레이스 찬양대 조용준 집사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270-80여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시간을 가졌다는게 지휘자로서 감사하고 은혜였다."라며 감격을 전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지난 1973년 당시 약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크루세이드(Crusades) 집회에서 설교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함께하는 '2020 서울페스티벌'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내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열린다.



1973년 여의도 크루세이드(Crusades) 집회에서 설교한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시편 26:7)

### 강중침 제1회 백일장 대회



#### 수상자 명단

##### 간증문 부문

'더 쓰임': 김문자 권사  
'쓰임': 최도윤 성도

##### 시 부문

'더 쓰임': 김선율 성도  
'쓰임': 홍광표 집사

##### 기도문 부문

'더 쓰임': 강대립 원로장로  
'쓰임': 이덕영 권사

##### 그림일기 부문 (차세대 교육국)

'더 쓰임': 이동현 (초3)  
'쓰임': 김하은 (7세)

##### 시, 간증 부문 (차세대 교육국)

'더 쓰임': 김진의 (중3)  
'쓰임': 김태수 (고3)

##### 감사상

김한아 성도

#### 출판위원회



### 《“쓰임” 시 부문 당선작》

#### 캄보디아는

김선율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 하나 없더라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맑게 뛰어오는 아이들의 흠문은 발과  
뒤이어 피어오르는 자욱한 흠문지도

땀내나는 햇볕과  
그늘막에 찾아온 바람내도

비가 갠 뒤 핀 붉은 노을과  
흐르는 눈물 속 빨간 눈시울도

가진 게 없어 감사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말해주더라





# 153 기적(miracle) 주인공 is me!

7월 21일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 153 감사카드 답장에서 “우리 주님의 치료와 갑절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며 153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드렸다.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지하철에서도 기도하고, 병원에서도 쉬지 않고 매순간 기도를 드렸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오늘처럼만 숨 쉬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나는 유방암 수술과, 갑상선과 간에 혹이 8개로 지난 1월 간이식 판정을 받은 절망상태였으며, 또한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척수공동증 희귀병 판정까지 받았다. 게다가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야만 걸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바람 끝에서 화려했던 미국 뉴욕생활을 접어야만 했다. 캘빈클라인 뉴욕에서 41년간 죽도록 일하던 워크우먼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명예들…….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듯 나는 영구 귀국을 하여 지난 3월 강중침에 새신자로 등록을 했고, 최병락 담임목사님의 뜨거운 설교를 가슴에 담게 되고, 목사님의 인수를 받고, 침례를 받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멘으로 교회 생활에 젖어들었다. 성경공부 믿음의 터 → 전도훈련 → 선교훈련 공부를 하며 또한 현금위원 → 새신자 안내 → 월드립 서포터 영어통역 → 쓰임찬양대 등 교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믿음을 키워갔다. 또한 “할머니는 천국에 집이 없어요.”라고 한 4살짜리 손자의 말을, 심입조를 안 해서 천국에서 나의 집을 지을 자재가 없다는 뜻이라고 아들이 해석해주었다. 순간 뜨끔했다. 바로 심입조 생활을 시작했다. 현금은 크리스천의 의무라고 믿게 되었고, 지금은 거저씨만한 믿음이 자라났다.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고, 찬양과 봉사로 오늘도 숨 낸다. 아침 햇살을 머리에 이고, 001번 마을버스를 타고 병원 유방암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일상. 암 수술을 기다리는 절망 속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며 주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하려 힘껏 다닌다.

1년 전 나는 뉴욕 브로드웨이를 누비던 워크우먼이었다. 오늘의 나는 강중침 전도지를 들고 아프고 약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기쁨의 소식,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라 병원을 누비고 다닌다. 또한 매일 저녁 153 감사노트를 빼곡히 채워가면서 성경 1줄이 아니라 하루에 전도 1명을 실천하려 발걸음을 재촉하는 일상.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생명들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입술을 움직여 전도한다. 현재 18명을 전도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십자가로 나가리라 믿는다. 강중침에서 기도와 성경공부와 전도에 매달려 6개월이 지났고 지난 9월 27일 MRI 찍고 10월 1일 의사로부터 어메이징(Amazing) 결과를 들었다. 그것은 유방암, 갑상선에 큰 변동이 없고, 간의 혹 8개가 더 이상 자

라지 않았고, 고드름처럼 혹들이 서 있어 총돌이 위험했으나 이제 혹들이 옆으로 눕기 시작하여 큰 위험을 넘겼다면서 현재로서는 간 이식은 할 필요 없으며 내년 2월 MRI 추적 검사를 하는 걸로 의사는 판정했다. 척수공동증 역시 손가락 끝 마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 그렇다. 내게 10월은 기적이다(Miracle October). 담임목사님의 말씀대로 나는 153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고 계신다. 최병락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주님의 치료와 갑절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믿으며 놀라운 치유에 한없는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린다. 나는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살아 있으며, 움직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또한 국적과 신분애 상관없이 곳곳을 다니면서 성령을 입술로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에 엎드려 감사드린다. 내 삶에는 3C의 행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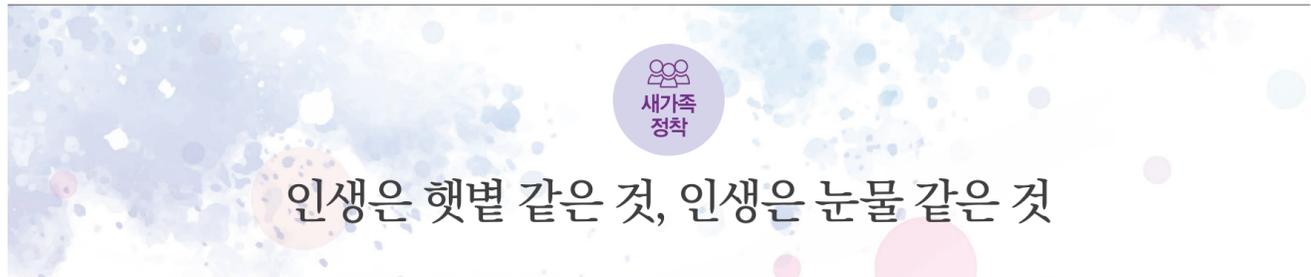


박수현 성도

Choices(선택) 나는 강중침을 선택한 복 받은 크리스천이다. Chance(기회) 성경공부와 교회봉사로 기도의 동지들을 만나 함께 선을 이루는 기회를 얻었으니, 행복한 교인이다. Change(변화) 드디어 강중침에서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에 이보다 더 감사할 삶이 없으리라 믿는 신앙인이 되어 자부심을 갖는다. 예전의 세상의 삶에서 → 이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감사의 삶 →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 단 6개월 만에 강중침에서 내 삶이 통째로 변했다. → 이것이 153 감사에서 얻은 참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이다. 주님께 엎드려 감사드리며 행복한 간증을 올립니다.

PS. 지난 6개월 동안 강중침 안병국 목사님, 안성권 목사님, 문인성 전도사님, 이현아 전도사님, 오은숙 권사님과 구역 가족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변함없는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 박수현 성도 |



진초록 커다란 나무들이 성성하게 나뭇잎을 너끈하게 흔들고, 키높이만 한 나무들은 화단에 있는 잔잔한 꽃가지를 지켜주듯 애뜻한 모습으로 가을바람에 날립니다. 보색한 나뭇가지들이야 이 파리들이 적어 덜 흔들리는 듯하지만 그 속이 어느 만큼 애쓰고 있는지, 바람 좋은 날씨 좋은 이 가을에 변해버릴 잎새의 색깔이 누렇게 바뀌는 것에 스스로 아픈지 묻고도 싶습니다. 바스락하면서 스산하게 느껴지는 이 계절은 지나간 시간을 다시 깊이 여쭙보게도 하는 날들입니다. 곳곳했을 기억들처럼 항상 인생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나날입니다. “아버지를 늦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던 그날들은 계절같이 휘둥둥이 하루하루 어느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모는 천년만년 사서도 행복하다는 우리 기도처럼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 “아버지를 늦게, 어서 건강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에 전하신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며 기도를 했던 그해의 월드컵 열기 속에서, 나는 시간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도 하고 싶었던, 식사도 하며 더 많이 같이 웃고 싶었던 내 마음들은 아쉬움으로 눈물 그렇게 남아 인생의 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햇볕 같은 것, 인생은 눈물 같은 것”이라고 썼던 내 책에서처럼 햇볕은 다듬고 눈물은 꼭꼭 눌러 담으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향한 발걸음을 못한 것은 아

니었습니다. 두 손 모아 하는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 그 많은 기도를 어찌 다 들어주시겠냐며, 그 안의 깊은 구원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 어찌지…….”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목사님의 교육 설교를 재미있게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다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 그분이 가장 큰 그분이시라면 얼마나 든든할까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또 기댈 수 없던 기도를 당신께 합니다. 저마다의 초대처럼 교회 앞에 오면 마치, 준비된 부듯한 순서처럼 예배를 안내하는 봉사를 하는 성도들의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듯 인사를 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하는 릴케의 시 구절처럼 기도를 설교를 은혜로 주시는 말씀 들으며 이미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위로보다 귀한 ‘어쩌면 살아갈 날들에게 하는 기도 안아들고’ 소중한 예배드리러 “주여, 저는 지금 너무 기쁘게 당신 교회에 왔습니다.”

| 한은미 성도(「그리우면 찾겠지」 저자) |



# 더숲교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살롱! 강중침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더숲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운 여름을 잘 보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매일 성경(성서유니온)으로 큐티를 시작하고 아침 7시 본문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함께 읽는 묵상 훈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묵상한 본문을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공책에 적어가며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더숲교회는 대구 동천동 지역에서 ‘그 나라’ 어린이 도서관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주중 많은 지역의 30~40대 어머니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 동아리 모임들이 결성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코더, 독서모임, 그림 그리기 등의 모임이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천동 지역은 어린이들과 젊은 어머니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들을 만나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복음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숲교회는 하반기 금요기도회를 통해 영혼을 깨우고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무릎이 되고자 합니다. 매월 첫 주는 특별기도회를 통해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더숲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0월도 더숲교회가 성령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더불어

주님의 숲을 이루어 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숲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더숲교회 장윤규 담임목사 |



묵상훈련



‘그 나라’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동아리

# 김해에서의 우즈베키스탄 사역

우즈베키스탄을 하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안식년을 갖고 있는 정요섭, 김다비다 선교사입니다. 비록 안식년이지만 선교를 할 수 없기에 김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2학기 김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은혜로 마치고 9월부터 새로운 2학기 김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우즈벡 인들이 7만 명이 있고 김해 주변에만 3천 명의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있어 지난 안식년 기간 중 흥분된 마음으로 김해의 우국(우즈베키스탄을 줄여서 ‘우국’이라고 부릅니다.) 인들을 만났습니다. 찾아가고 초대하고 식사하고 친구가 되며 7개월을 보내었습니다. 우즈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상황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몇몇은 우리의 성급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주변에 소식을 듣고 찾은 여러 교회 집사님들과 화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토요일 전도와 주일 한글반이 개설되었으며, 공휴일에는 부산으로 소풍도 가고 축구도 하고 심방도 하며 다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모슬렘과 우국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난 우국인들은 수백 명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여전히 실험적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 우국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늘상처럼 어제도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몇몇 집사님과 김해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사역 내용을 나누며 함께 통성 기도를 합니다. 센터에 도착하여 한글 교재들과 기타, 준비된 음식들을 3층 센터로 옮겨놓습니다. 한 집사님이 준비한 간식 겸 점심을 먹으며 진행될 사역을 나눕니다. 어제는 각반 선생님들께 수업 후, 노래 교실과 전체 식사가 있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1시부터 우국 친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자마자 탁구도 치고, ‘체스와 나뭇조각 쌓기인 ‘젠’기도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체스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기초부터 토픽까지 우국인 4반 약 25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3층 아담한 공간에서 두 반이 수업하고 4층 쉼터에서 두 반이 공부합니다. 3시부터 공부가 끝나는 대로 3층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국 친구들 대상으로 한 주간의 피로를 위해 노래 교실을 열었습니다. 옆에서는 요란하게 탁구치고 도떼기시장처럼 시골벽적한데 우국 친구들은 신납니다. 그리고 닭볶음탕을 먹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국 땀

을 함께 먹으며 삼삼오오 직장이야기, 고향 이야기 등 설 새 없이 떠듭니다. 몇몇 친구들이 떠난 뒤, 세명의 우국인들과 그리고 더 많은 한국인이 함께 우국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우국인들을 바르게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국 예배자를 보내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한국의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야말로 한국의 문 앞이 열방이며, 길거리가 땅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242만 명(19년 8월)에 국적 취득자까지 포함하면 350만 명으로 전체 7%가 임박한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중 저희는 우국국인들과 모슬렘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날수록 한국에서 일하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되고 있는 자한길, 아들의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집을 팔아 1년째 한국에 있는 카흐라몬, 탈장수술 도움을 받고 좋아하며 일자리를 지키려고 숨겨왔던 간질이 최근 알려져서 쫓겨나게 된 ‘소브르’가 있습니다. 치료의 주를 만나게 하소서, 외로움과 불법, 향수병과 힘든 일에 지친 외국인들이 가난한 마음에서 생명의 주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위한 사역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하는 축구선교

| 김해에서 정요섭, 김다비다 |

- 기도제목**
1. 한국의 모슬렘들과 우국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의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2. 부산 김해지역에 시작되는 우국 교회가 생명력 있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소서.
  3. 국내 이슬람의 위협과 긴급성을 알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 초등처 파자마 파티



와아아아! 아이들의 함성과 약자지컬한 이야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토요일 밤 8시 텅 비어 있어야 할 교육관에 파자마를 입은 아이들이 하나 둘 모였습니다. 바로 초등처 파자마파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파자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새친구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과 파자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도 56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예소리' 찬양 팀의 오프닝이 시작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한 데 어우러져 같이 목소리 맞춰 찬양하고 몸으로는 오른쪽 왼쪽 울동을 따라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 202호는 찬양의 뜨거운 도가니입니다! 찬양이 끝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어디로 갔나 하고 보니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배정받은 텐트 안에 모여 있습니다. 텐트 안의 무드등에서 퍼져 나오는 은은한 불빛과 선생님들이 복음책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들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아이들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무르익습니다.

복음전파 시간이 끝나고 "왜에영~~~" 하고 귀를 찌르는 싸이렌 소리와 함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텐트를 빠져나와 한 곳에 모임과 동시에 팀별 대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빨강 이겨라!!! 노랑 이겨라!!!!" 각자의 팀을 응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한참 게임에 푹 빠져가는 때에, 울리는 호루라기 소리! 후루루루~~~ 아이들이 갑자기 바닥에 엎드립니다. 응원을 하던 아이들도, 트랙을 따라 바통을 잡고 달리던 아이들도 모두 납작 바닥에 엎드립니다. 가장 먼저 엎드리는 림들에게 주는 점수 때문입니다. 이윽고 들리는 목소리 "빨강, 파랑, 초록팀에게 점수!!!" 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의 함성소리와 함께 멈춰선 게임이 진행됩니다. 높아져가는 팀별 점수처럼, 아이들의 목소리도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교육관의 창문은 아이들의 열기로 물방울이 맺힙니다.



즐거운 게임 시간이 마치고, 아이들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무릅니다. 바로 '강남마켓'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받은 팀 점수에 따라 아이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이 달란트로 강남마켓에서 원하는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녁 11시 평소 같았으면 잠을 자는 시간에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스물 다섯가지가 넘는 엄청난 라면의 종류, 떡볶이, 구운 계란, 핫바, 치킨, 특이한 과자



루룩! 라면도 먹고 떡! 친구의 머리를 빌려 구운 계란도 까먹고 '뽕' 전자렌지의 소리에 맞춰 뜨거운 핫바도 먹으며, 배고픈 배도 채우고, 친구와의 추억도 마음에 채워줍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윤혜정 교사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와서 어떡하냐"고 말하며 빨리 가서 음식을 더 사와야겠다. 고 운전대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과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엔 감사함이 넘칩니다. 또한 반 아이들이 전도받은 친구가 있어 참여한 이인숙 교사는 "매 번 이런 초대행사가 있어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아이들이 교회가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보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파자마파티에 참석했던 아이들은 아침을 먹고 초등처 프렌즈데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전날에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프렌즈데이에서 준비한 간식의 달달한 향기가 교육관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렌즈데이의 컨셉은 '영화관'입니다. 버터오징어, 치킨, 튀리스, 팝콘 등 극장에서 먹을 수 있던 간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음식 때문에 아이들은 '심쿵!'(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좋다는 표현.) 눈으로도 먹음직스러운데 그 맛에 아이들은 빠져듭니다. 그리고 영화관 컨셉에 맞추어 준비된 영화실교를 통해서 40분간이나 설교를 들어도 지루한 줄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파자마파티와 프렌즈데이에 참여한 한 학생(새신자)의 학부모는 엄마로서 아이가 교회에서 신나는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엄마로써 너~무 기뻐했다고, 새로 데리고 온 친구가 계속 나오고 싶다고 했다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새신자 중 한 명은 "저는 처음 교회를 왔지만 다음 주에는 제 친구도 데려오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파자마파티! 즐거운 프렌즈데이! 그리고 빠져드는 복음의 메시지! 강중침 초등처였습니다.

| 초등처 이정운 전도사 |



# 중등처를 위한 중등처에 의한 중등처의 Festival!!



**박종진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것 만으로 이번 행사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ACE Festival은 새 친구를 데려와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 했고 새 친구도 데려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 2회부터는 기존 친구들과 새 친구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 친구들도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중등처'라는 공동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준 학생들과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황철순 선생님(중등처 교사)

운동 부족으로 심장과 호흡이 순식간에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것을 오랜만에 알게 되었고 골킥퍼로 교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기를 타는 냄새와 김치 굽는 냄새를 맡으며 푸른 자연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의 교제가 중등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흘러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6

10월 19일 토요일, 완연한 가을에 중등처의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바로 ACE Festival! "ACE"는 "Anyone Can Enjoy"의 약자로써,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중등처의 문화행사이다. 이 문화행사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중등처의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만남이 너무 짧고, 학생들 또한 어색한 관계가 참으로 많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이 활동을 통해 전도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참여한 모두가 에이스(고수)가 되리라 확신한다.



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참여한 모두가 에이스(고수)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 17명, 교사 23명이 참여하였다. 총 40명이 양수리수양관으로 이동하여 남자 학생들은 축구를, 여자 학생들은 향수 만들기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했다. 남전도회와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였는데, 학생들과 잘 어우러져서 함께 신나게 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넓은 잔디구장에서 후보 선수없이 뛰어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호흡을 맞추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했던 즐겁고 통쾌한 시간이었다. 향수 만들기는 전문 조향사를 초청하여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향수도 만들어 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특히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였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문화활동을 2시간동안 진행한 후 모두 식당으로 모여 즐거운 바비큐파티를 가졌다. 남자선생님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주셔서 모두가 식사를 맛있게 하였고, 식탁 교제를 통해 모두가 부담 없이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며, 전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깊게 나누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문화활동과 맛있는 점식식사를 마치고 두란노관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후 모두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교회로 복귀하였다. 앞으로도 "ACE Festival"이 중등처 안팎으로 윤희유 역할을 잘해서 중등처가 더욱 발전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학생들의 한마디**

- 신중혁** 축구 이겨서 좋았어요. 내년에는 야구 해요.
- 최동환** 밥이랑 고기가 맛있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다음에는 발야구 해요.
- 염유빈** 향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론도 배워서 재미있었어요.
- 최서윤** 향의 기원도 배우고 조향사에 대해서도 배워서 재미있었어요. 토요일에 야외에서 놀아서 좋았어요.
- 이주원** 중등처에만 있는 행사라서 중등처가 특별해진 것 같았어요. 중등처 생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 안재욱** 내년엔 탁구 해요. 소세지도 구워주세요.
- 도승범** 축구 재밌었어요.
- 박상원** 밤새도록 축구 하고 싶었어요. 내년엔 고기 말고 짜장면 먹고 싶어요.
- 박수아** 갈 생각이 없다가 갔는데 재미있었어요.

토요일도 학원과 학업으로 바쁜 중학생들! 모든 중등처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지만 참여한 아이들의 만족도는 그 어떤 행사보다 높았습니다. ACE Festival은 한 번도 안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애들이 신앙의 에이스(ACE)가 되어 다음 ACE Festival(ACE=Anyone Can Enjoy)도 가져!"

## 피영민 목사님의 구약개론

### 역대하 개론 9 (하) 역대하21:1-20

역대하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악한 왕 '여호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맏아들인데 32세에 왕이 되어 8년을 통치했으나 악한 아내인 아합의 딸 아달라의 영향으로 자기 여섯 형제를 모두 죽이고 충성하는 방백들도 일부 죽였다. 백성들은 여호와 섬기는데서 돌이켜 우상숭배를 하도록 인도했다.

**역대하 21장은 여호사밧의 맏아들인 악한 왕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다.**

❶ 여호람 왕은 32세에 왕이 되어 8년을 치리하다가 창자에 병



이 들어 죽었다.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다고 했으니 아마도 탈장 이거나 대장암이었을 것이다. 그는 좋은 유산을 가진 왕이었다. 아버지도 훌륭한 여호사밧 왕이었고, 여호사밧의 아들들 가운데도 장자권을 가진 맏아들이었다. 그는 단독 왕이 되기 이전에도 여호사밧 왕과 공동 왕위를 가지고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경험도 쌓았다.

❷ 하지만 여호람 왕에게는 나쁜 것들이 있었다. 그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치 아니했다"(12절), 그리고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다"(11절) 또한 그는 나쁜 아내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다. 아합의 딸인 아달라를 정략결혼을 통해서 아내로 맞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쁜 처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합이 장인이고 이 세벨이 장모였다.

❸ 그는 악을 행하였다. 여호람은 장자로서 아무 여섯이 있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나머지 여섯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어 평안히 살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아무 여섯을 모두 죽이고, 유다의 방백 중 몇 사람도 칼로 죽였다. 왜 죽였을까?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이 후예라도 왕위를 빼앗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재물을 빼앗아 취하고자 하는 동기였을 것이다.

❹ 그는 왕으로서도 무가치한 왕이었다. 신앙적으로도 배교하였고 통치력도 미약하여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립나가 모두 배반하여 조공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인간적으로도 전혀 인심을 얻지 못한 왕이었다. 창자가 빠져나와 죽어도 아무도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다고 했다.

❺ 하나님은 여호람을 심판하셨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너는 우상숭배하고 너보다 의로운 아우들을 죽였으니,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큰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고, 너는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11-15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결국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하여 막내아들 '아하시야'만 남기고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물과 아내들은 빼앗겼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 2년 만에 4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그대도 막내 '아하시야'를 남기신 이유는 다윗과 그 자손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 결론

하나님은 사람의 선이든 악이든 다 아시고 결국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꿀팁! 신앙의 베이직 유대인의 달(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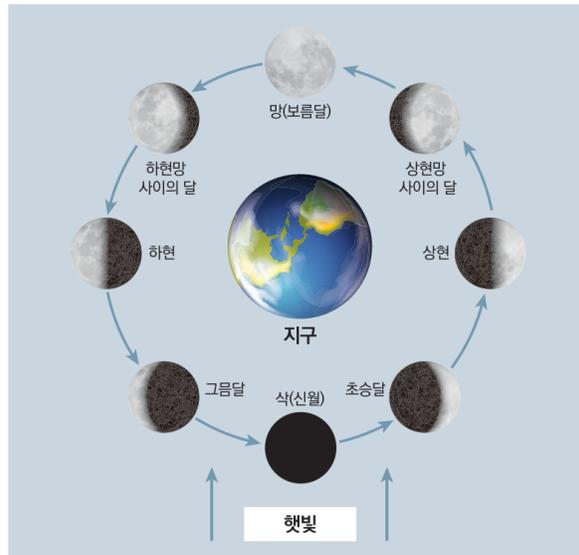
무더위로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가을의 문턱을 넘어 이젠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해야 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천체의 기풍 있고 정확한 움직임에 히브리 사람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유대력(Jewish Calendar)으로 불리는 유대인의 달력은 '달'(moon)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입니다. 1년은 354일로 태양력과 매달 11일의 차이를 보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추가함으로써 태양력과 같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달을 언급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된다. '다시 살아남(갱생)'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코데쉬(호대쉬)입니다. 이는 초하루를 의미하며 초승달의 새로움이나 모양을 언급할 때, '한 달'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백함'을 뜻하는 은빛의 달을 표현하고 다른 천체들과 같이 설명할 때 아래아흐가 사용되었습니다. 셋째는 달을 시작으로 표현할 때 레바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얗다, 순결하다, 속죄하다'는 동사 라반에서 온 단어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었죠? 그는 이름값을 못하는 욕심쟁이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월삭'(月朔, New moon)으로 등장하는 초하루는 태음력을 쓰는 문화에서 무척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정확한 월삭의 결정은 다른 모든 절기를 지키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한 달은 월삭의 실제 관측(육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공적으로는 나팔을 부는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민10:10, 시81:3).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까지 제2성전시대 동안에는 초승달을 보았다는 믿을 만한 목격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 산헤드린(원로회의, 공회)이 특별한 전당에 앉아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우리의 29일 저녁에 해당하는 30일의 시작 때, 초승달이 보였으면 산헤드린은 전(前)달이 '불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29일 저녁에 초승달을 본 믿을 만한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30일 저녁은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 달은 '꼭 찬' 즉 30일로 이루어진 달로 선포됩니다. 이 때 관측된 월삭은 천문학에서 말하는 월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달이 태양과 '합'을 이루어서 지구에서 볼 때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월삭은 태양이 진 여명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간신히 보이는 초승달입니다. 따라서 태양과 합 이후 18시간이나 40시간쯤 지난 후에 처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는 일은 가끔 매우 불확실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봄과 가을 명절은 보름달이 뜰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던 가을 축제는 중추의 보름달 시기에 열렸습니다. 중추의 보름달이 특별한 이유는 태양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천구의 적도를 지나갈 때인 추분 때는 보름달이 천구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남쪽에 있을 때는 매일 밤 점점 높이 올라가서 더 오랫동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한 과일을 즐기하면서 가족과 함께 장막이나 녹색가지로 만든 초당(草堂)에 머무르는 초막절(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 밤은 연중 달빛이 가



장 충만할 때였습니다. 많은 편리함을 주는 현대의 도시는 하늘과 대부분 차단되어 있습니다. 저녁 여명이 짧고, 태양이 지면 어둠이 모든 것을 곧바로 덮어 버리는 광야에서 달과 무수한 별의 정돈된 움직임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경험이었을까요. 지금도 초막절 텐트는 누워서 하늘을 볼 때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을 볼 수 있도록 구멍(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밤은 어떤 달이 뜨는지 보게 어떨까요?

※참고도서: 에드워드 윌터 몬더 지음, 장현영 옮김, 성경과 천문학, 한국문화사 2017년 07월

| 편집위원 김해순 집사 |

2019 THANKSGIVING CONCERT

# 추수감사절 감사콘서트

11월 22일 금요일 pm 8:00

작곡가 유범석

작곡가 김영훈

작곡가 손경민

작곡가 홍지승

남성솔로 . 여성중창 . 남성중창 . 쓰임찬양대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감사콘서트」가 11월 22일 금요일성령집회 시간에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감사콘서트는 출판위원회에서 주최한 강중침 백일장 '쓰임'을 통해 제출된 작품 중 찬양 시를 선정하여 최고의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였으며, 프로젝트 찬양대인 '쓰임찬양대'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작곡에는 우리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 유범석 교수(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드라마와 광고 음악의 대가 김영훈 작곡가(플레이트 뮤직 대표), '미스트롯', '너목보'의 음악감독 손경민 교수(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늘 영성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홍지승 목사(강남중앙교회 부목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감사콘서트는 금요일성령집회 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특

별한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병락 담임목사의 설교와 성도들의 간증을 담아 작곡한 찬양들을 스토리텔링하여 연주할 계획이다. 남성솔로, 여성중창, 남성중창, 합창이 있는 다양한 무대와 은혜의 설교가 어우러지는 만큼 감각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음악위원회 이현아 전도사 |

## 진짜 감사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말이 뜻하는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 보다는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곤 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축복과 형통에 감사하기는 쉬워도 고난 중에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기쁘고 감사하나요?

| 글 최영수 집사 |  
| 그림 최지영 집사 |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11)

강남중앙침례교회 차세대교육국



**BIBLE**  
**2019**

**제 2 회 성경 암송 대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 개요

- 일시: 2019년 11월 17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멀티교육문화센터 401호
- 대상: 유아처, 초등처, 중등처, 고등처

### 암송범위 \*개역 한글역 기준

유아처	요한복음 1장 1~14절
초등처	고린도후서 4장 1~18절
중등처	시편 103편 1~22절
고등처	에베소서 1장 1~23절

### 시상

- [1등/1명] 트로피, 메달, 30만원 상당 상품권
- [2등/2명] 메달, 20만원 상당 상품권
- [3등/3명] 메달, 10만원 상당 상품권
- [장려상/5명] 외식상품권 5만원권

### 진행

- 예선: 각 처별
- 본선: 교육국 전체(11월 17일)

### 주관

- 차세대교육국, 남전도연합회, 여전도연합회

### 주일예배·수요일예배·기도회

주일	1부 예배	am 8:00	2부 예배	am 10:00
	3부 예배	pm 12:00	4부 예배	pm 2:00
	5부 예배	pm 4:00	주일 새벽예배	am 6:00
	영어 예배	pm 12:00		
	수요	1부	am 11:00	2부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pm 8:30	새벽	am 5:30

### 교회 오는 길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달성현황표**

교구	385042:44
남전도회	81707:28
여전도회 회장단	33792:07
선교위원회	122809:00
청년위원회	25489:15
교회학교	8449:05
<b>총</b>	<b>총 시간 762115:40분</b>

**남은 시간 237884:20분**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 2019년 11월 3일(제202호)

발행인 | 최병락 담임목사    편집인 | 최재우 위원장    교역자 | 김요한 목사·이길호 전도사    편집위원 | 감해순·김영숙·리림·박버리·윤유진·조유희·최영수·최준호·최지영·한혜경    사진 | 정일  
 발행처 | 강남중앙침례교회 출판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    구독문의 | 02-546-3950    팩스 | 02-546-1302    이메일 | kjbcgrace1976@gmail.com  
 홈페이지 | www.kjbc.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 GNA Communications    월간 비매품    ■은혜지는 재생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됩니다.